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게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법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 청원이나 원서를 냄.

1.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② 보통명칭 표장과 관용 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③ 어떻게 하면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 ④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가?
- ⑤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2.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 ⑤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3.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윗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촉: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 ① ㉠과 ㉡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 ② ㉠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는 그렇지 않다.
- ③ ㉠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는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④ ㉠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는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⑤ ㉠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는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흔히 건반 악기라고 부르는 피아노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반으로 연주하는 현악기이다.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생성된 음이 음향관에서 증폭되어 특유의 음색을 가진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피아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액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건반마다 하나씩 있는 액션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액션은 건반을 누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건반을 누를 때에는 해당 현의 댐퍼가 현에서 떨어지게 했다가 손을 건반에서 뗄 때 댐퍼가 현에 다시 붙게 한다.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머에 의해 진동을 시작한 현이 계속 진동할 수 있게 하고, 그 건반에서 손을 떼면 댐퍼가 다시 현에 붙도록 하여 다른 현이 진동할 때 공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해머가 현을 때리는 즉시 액션은 해머를 현에서 이탈하게 한다. 액션이 이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만약 해머가 현을 때리고 곧바로 떨어지지 않거나,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그 반동으로 인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해머의 방해로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반 하나에 액션은 하나가 대응하지만 현은 그렇지 않다. 건반 하나에 같은 음높이로 조율된 여러 개의 현들이 대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저음부에는 해머 하나에 같은 음높이의 현이 1~2개씩 대응되어 있고, 중고음부에는 2~3개씩 대응되어 있어 해머가 한 번에 여러 개의 현을 때릴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음높이를 가진 현이 여러 개 진동하므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은 현과 음향관을 잇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를 거쳐 음향관으로 전달된다. 음향관은 현의 진동을 전달 받아 공기와의 접촉면을 넓혀 음량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음향관에는 향봉이 부착되어 있어 음이 음향관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음향관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피아노의 페달 역시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 특정 역할을 수행하여 음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피아노의 세 페달 중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댐퍼 페달’이라고 한다. 이 페달을 밟으면 모든 현에서 댐퍼가 일제히 떨어지게 된다. 만약 댐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건반에서 손을 떼도 이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댐퍼 페달은 연주된 음을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효과를 낸다. 왼쪽 페달은 ‘소프트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해당 건반의 해머가 때리는 현의 수를 3현은 2현으로, 2현은 1현으로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운데 페달은 ㉠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음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아노의 종류와 그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피아노의 주요 장치와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피아노의 제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 ⑤ 피아노의 연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부각하고 있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향관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군.
- ② 건반 개수는 액션 개수와는 같지만, 현의 개수보다는 적겠군.
- ③ 건반을 세게 내려치면 액션은 그 힘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군.
- ④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해머가 현을 때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⑤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곧바로 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연주자가 의도한 대로 현이 울리지 않을 수 있겠군.

7. ㉠을 밟았을 때의 효과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 음이 지속된다.
- ②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 음 외의 다른 음이 공명한다.
- ③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아도 해당 건반 음을 멈춘다.
- ④ 건반을 누를 때 해당 건반 음의 음량을 감소시킨다.
- ⑤ 건반을 누를 때 해당 건반 음 외의 다른 음이 공명한다.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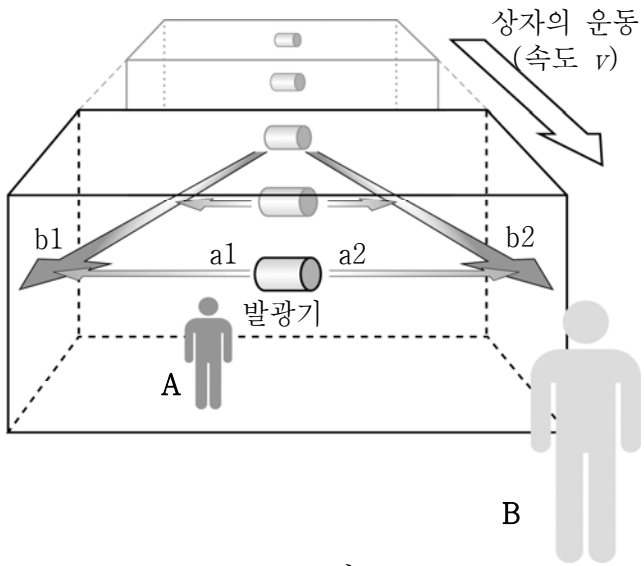
a b c d

※ 단, ㉠을 연주할 때부터 댐퍼 페달을 밟았다가, ㉠을 연주하기 직전에 댐퍼 페달에서 발을 뺀다.

- ① ㉠을 연주할 때, 건반을 손에서 뗀 후에도 현은 계속 진동하게 되므로 ㉠의 연주 음과 부드럽게 연결된다.
- ② ㉠을 연주할 때,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현만 댐퍼에 붙지 않으므로 댐퍼 페달을 밟지 않을 때보다 음량이 커진다.
- ③ ㉠을 연주할 때, 건반을 매우 강하게 누른다고 해도 ㉠에서는 어떠한 현도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 ④ ㉠을 연주할 때에는 ㉠, ㉠와 달리 건반을 손에서 뗀 후에는 해당 건반의 현 외에는 울리지 않게 된다.
- ⑤ ㉠을 연주할 때, 건반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건반들의 댐퍼는 현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해당 음들이 서로 공명을 일으킨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에게 에너지와 질량은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E = mc^2$ 이라는 공식으로 에너지(E)와 질량(m)의 관계를 밝혔다.



<그림>

㉠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상대성의 원리’와 ‘광속 일정의 원리’라는 두 가지 공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림>과 같은 ㉠가상의 사고(思考)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큰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는 A와 발광기가 각각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다. 상자 안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상자 밖의 B를 향해 그 상자는 등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발광기가 어느 순간 좌우를 향해 완전히 같은 세기의 빛(에너지)을 발사한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광기가 빛을 발사했지만 <그림>의 a1, a2와 같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동은 완전히 상쇄되어 발광기는 빛을 발사한 후에도 상자 안에서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B의 입장에서 상자가 자신을 향해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상자 안의 발광기도 상자와 같은 속도로 접근해 온다. 그런데 발광기가 발사한 두 빛은 <그림>의 b1, b2와 같이 비스듬히 좌우로 퍼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빛의 발사로 인한 반동이 완전히 상쇄되지 못한다. 상쇄되지 못한 반동은 발광기의 운동에 감속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자의 속도에 비해 발광기가 접근해 오는 속도가 느려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발광기의 운동이 A와 B에게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빛의 발사라는 에너지의 방출이 발광기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른 감속과 질량을 잃은 것에 따른 가속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광기가 상자와 같은 속도로 B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A와 B가 보는 상황은 다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고 생각되었던 에너지와 질량이 광속(c)을 환산인자*로 하여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리량이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물체의 질량이 그 물체가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에 대한 척도이며,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질량은 E/c^2 만큼 작아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광속(c)이 진공 중에서 대략 초속 30만 km이므로, 광속을 제곱한 값(c^2)은 대략 $9 \times 10^{16} \text{m}^2/\text{s}^2$ 의 천문학적인 수가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우리에게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 공리: 수학이나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
* 환산인자: 어떤 단위로 표시되는 양을 다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거나 나누는 인자.

9. 밑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 ②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광속의 역할
- ③ 광속의 변화 이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
- ④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나타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 ⑤ 에너지와 질량의 관련성에 대한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의 생각

10. ㉠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같다.

- ①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증가하겠군.
- ②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엄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 여부도 고려되어야겠군.
- ③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크다면 반응 결과에 따른 생성물에 잠재된 에너지는 증가했겠군.
- ④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군.
- ⑤ 화학 반응에서 발열 등으로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이겠군.

11.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빛의 방출에는 반동이 수반된다고 본다.
- ② ㉠에서 A와 B가 인식하는 빛의 진행 방향은 다르다고 본다.
- ③ ㉡에서 에너지의 방출은 질량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에서 A와 B는 모두 발광기를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 ⑤ ㉡에서 발광기에서 발사한 두 방향의 빛은 결과적으로 발광기의 운동을 변화시킨 것으로 본다.

[1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란 LED의 발광층에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특정한 색의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넣은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 RGB-OLED는 빛의 3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을 내는 서브픽셀 세 개가 모여 하나의 픽셀을 이룬다. 서브픽셀은 전자를 주입해주는 음극, 전자와 정공*이 만나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층, 정공을 주입해주는 양극 등이 순서대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서브픽셀마다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박막트랜지스터(TFT)가 양극(+) 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류를 차단하거나 통하게 하고 전류량을 조절한다. 서브픽셀을 모두 끄면 검은색을, 모두 켜면 흰색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서브픽셀의 전류량을 조절해 빛의 양을 적절히 배합하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표현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발광층에서 빛이 나는 원리는 무엇일까? 에너지가 가장 낮아 전자가 안정된 상태를 ‘바닥상태’라 한다. 그리고 바닥상태에 일정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져 전자가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하며 높은 에너지를 지니게 된 상태를 ‘들뜬상태’라 한다. 들뜬상태의 전자는 안정화되려는 속성이 있어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전자는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 즉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가 되도록 가해졌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TFT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들뜬상태가 된 전자가 양극을 향해, 정공은 음극을 향해 이동하다가 발광층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발광층에서 전자는 정공과 결합하며 안정화되어 바닥상태가 되고 이때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 대부분 빛에너지로 전환된다.

서브픽셀별로 나오는 빛의 색상은 발광층에 들어간 유기물질

이 지닌 ‘밴드 갭’에 의해 결정된다. 밴드 갭이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 중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HOMO)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영역 중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LUMO)가 지니는 에너지 준위의 차를 말한다. HOMO에 바닥상태로 존재하는 전자에 밴드 갭 이상의 에너지를 가하면 들뜬상태가 된 전자가 LUMO로 이동하여 정공과 결합한다. 이후 전자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며 바닥상태로 돌아오면서 밴드 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 밴드 갭이 크면 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밴드 갭이 큰 유기물질은 밴드 갭이 작은 유기물질에 비해 수명이 짧다.

OLED는 중간에 위치한 발광층에서 만들어진 빛을 어디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 배면 발광과 ㉢ 전면 발광으로 나뉜다. 빛이 양극을 향해 나가면 배면 발광, 음극을 향해 나가면 전면 발광이라 한다. 배면 발광의 경우 음극은 전자의 주입 및 반사층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함수*가 낮고 불투명한 은과 마그네슘의 혼합 금속을 사용한다. 반면 양극에는 반대의 성질을 지닌 인듐과 산화주석의 화합물(ITO)을 사용한다. 그런데 빛이 양극에 위치한 TFT를 통과해 나갈 때 빛의 일부가 TFT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해 개구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구율이란 단위 화소 전체 면적에서 실제로 빛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의 비율로, 개구율이 높으면 동일 전류를 흘렸을 때 나오는 빛의 양이 많아 휘도가 높다. 이 때문에 개구율의 저하는 휘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일정 화질을 위한 휘도를 내기 위해서는 손실된 휘도만큼 더 밝게 발광시켜야 하므로 유기물질의 수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구율을 높이기 위해 TFT가 없는 음극을 향해 빛을 내보내는 전면 발광은 양극에는 일함수가 높고 반사층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이나 백금 같은 금속을 사용하고 음극에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음극에 ITO를 사용하면 일함수가 높아 전자를 쉽게 내줄 수 없다. 결국 음극에는 일함수가 낮으면서도 투명도가 높은 금속을 사용해야 하는데,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속을 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음극이 일정 두께 이하로 얇아지면 면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저항이 높아지면 패널의 위치별로 생성되는 전압이 달라지게 되어 화면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미소공진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발광층에서 생성된 빛의 일부는 반투명 음극을 통해 빠져나가지만 일부는 음극에 반사되어 양극을 향하고 양극에 다시 부딪혀 재반사되는데 이렇게 반사된 빛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며 미소공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미소공진현상에 의해 빛은 위상이 일치하는 파동들이 만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 파동의 강도가 세지고, 위상이 반대인 파동들이 만나면 상쇄간섭이 일어나 파동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미소공진현상을 통해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휘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높은 전류로 구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OLED의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 더불어 조건에 일치하는 파장만 보강되고 조건이 맞지 않는 파장은 상쇄되므로 스펙트럼이 좁아져서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얻게 된다.

* 정공: 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전자가 없어 생긴 빈 공간, 전자와는 반대로 양전하를 갖는 전하 운반체로 일종의 가상의 입자.
* 일함수: 전자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일 또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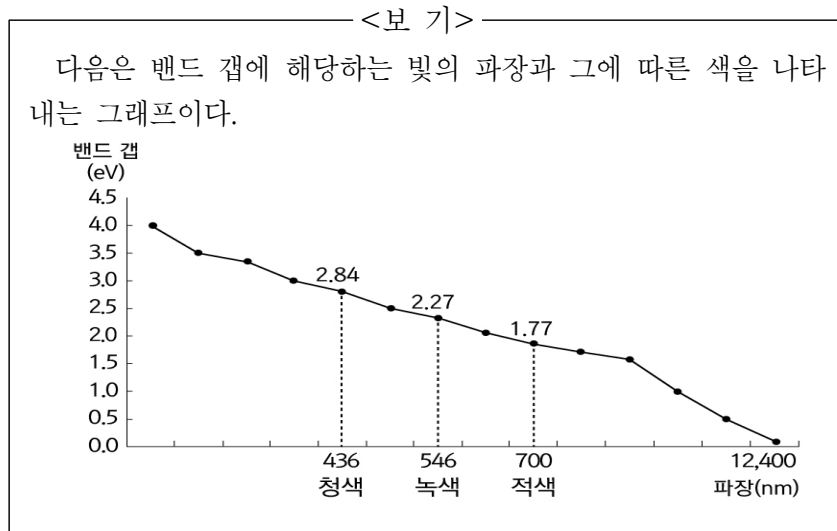
12.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OLED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OLED로 색을 표현할 때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OLED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면서 OLED의 구조와 발광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OLED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면서 OLED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소개하고 있다.
- ④ OLED의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구성 요소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⑤ OLED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OLED의 종류에 따라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흰색을 만들 때보다 청색을 만들 때 더 많은 전류량이 필요하다.
- ② 발광층에서 전자가 정공을 만나 빛을 방출하면 바닥상태로 돌아간다.
- ③ TFT를 이용하여 전류량을 조절하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만들 수 있다.
- ④ 적색, 녹색, 청색을 낼 수 있는 서브픽셀 세 개가 모여 하나의 픽셀을 이룬다.
- ⑤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정공과 전자가 발광층을 향해 이동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밴드 갭의 크기가 큰 유기물질일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는구나.
- ② 동일한 시간을 사용할 때, 녹색보다 청색을 내는 유기물질의 수명이 짧아지겠구나.
- ③ 밴드 갭이 2.5eV 이하인 유기물질을 모든 서브픽셀에 넣으면 흰색을 만들 수 없겠구나.
- ④ LUMO의 에너지 준위가 2.84eV이고 HOMO의 에너지 준위가 1.77eV인 유기물질은 적색을 내겠구나.
- ⑤ 2.27eV의 밴드 갭을 지니고 있는 유기물질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돌아오면서 녹색을 내겠구나.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음극에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여 빛의 양을 늘려준다.
- ② ㉡는 음극을 얇게 만들수록 면저항이 낮아져 화면의 균일도가 높아진다.
- ③ ㉠과 ㉡는 모두 빛이 나가는 방향에 일함수가 높은 물질을 두어야 한다.
- ④ ㉠과 ㉡는 모두 빛이 나가는 반대 방향에 투명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여 반사율을 높인다.
- ⑤ ㉠은 휘도를 높이고 유기물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전류량을 필요로 한다.

16. 윗글의 [미소공진현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파동과 상호 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 빛은 음극을 통과할 수 없구나.
- ② 서로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만나면 빛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 ③ 파동 간의 간섭으로 한정된 파장의 빛만 나오게 되므로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구나.
- ④ 전류량을 높이지 않아도 빛의 휘도를 높일 수 있으니 유기물질의 수명이 길어지는구나.
- ⑤ 파동 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양극과 음극에 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구나.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내심(內心)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 행위로서,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 의사에 이어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을 ㉠ 거치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A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서 B 소유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의사표시 과정을 살펴보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A의 생각은 ‘동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A가 B 소유의 토지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효과 의사’이다. 또한 이러한 ‘효과 의사’를 B에게 전달해야겠다는 A의 생각은 ‘표시의사’이며,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행위 의사’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사를 토대로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표시 행위’이다.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 따라서 동일한 법률 행위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의사표시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로 나뉜다. ㉢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의사표시자 내심의 효과 의사, 즉 의사표시자의 진의로 파악한다. 그런데 의사주의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의사표시자의 의사는 보호되지만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 표시주의는 의사표시자의 표시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본질을 표시행위로 파악한다. 한편 의사와 표시는 일체로서 양자 모두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 효력주의라 한다. 이는 의사와 표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의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효력주의에 따르면 표시행위는 의사의 단순한 외부적인 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완성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 착오의 기본 유형은 착오가 의사표시의 과정에서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행위의 이해, 표시행위 중 어느 단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이다. 금반지를 사려고 했는데 도금 반지를 금반지인 줄 잘못 인식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내용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대로 표시행위를 하였지만,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생긴 경우이다. 금반지의 가격은 100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로와 달러가 ㉥ 같은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인 줄로 잘못 알고 금반지를 100유로로 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시상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것과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서에 100,000원이라고 표시할 것을 착오로 10,000원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표시자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

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의사표시자의 입장에 ㉠ 섰더라면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가 이에 해당하는데,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로 한다. 셋째로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의사표시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주식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주식 양도의 제한 유무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의사표시자가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취소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그의 의사표시에 있어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인 행위를 한 경우,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자, 즉 착오를 일으킨 의사표시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착오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 있게 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취소권이 배제된다.

17.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시행위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다.
- ② 효과의사는 의사표시자의 동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 ③ 표시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해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 ④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⑤ 행위 의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18~19> <보기>의 (가), (나)는 의사표시자인 ‘갑’과 ‘병’의 착오로 인해 각각 발생한 사건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가) 갑은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을이 소유한 과수원을 사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을에게 밝히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을에게 지불하였다. 그런데 갑은 그 과수원이 소를 사육하기에 부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시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병 소유의 임야 중 일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는데, 병은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시 공무원은 법령을 오해하여 병 소유의 임야 전부를 □□시에 증여하여야만 그러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병은 그 공무원의 말을 따랐다. 이후 병은 자신의 증여 행위가 법령의 오해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8.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착오 발생 단계	착오 유발 주요인
① (가)	효과 의사의 결정	을
② (가)	표시행위의 이해	갑
③ (나)	표시행위	병
④ (나)	효과 의사의 결정	□□시 공무원
⑤ (나)	표시행위의 이해	□□시 공무원

19. 다음은 ㉠~㉣의 관점에서 <보기>의 (가)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갑이 토지를 사려는 목적이 소를 사육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하겠군.
- ② ㉡은 갑과 계약을 맺은 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작성한 계약서에 주목하겠군.
- ③ ㉢은 갑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던 의사가 완성된다고 보겠군.
- ④ ㉠, ㉡은 모두 소를 사육하기 위해 을의 토지를 사려는 갑의 의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갑의 행위를 분리하여 보겠군.
- ⑤ ㉡, ㉢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 을의 행위가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갑의 의사에 우선한다고 보겠군.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후 매수인이 1,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를 밝힌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매수인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법률상 공장 신설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던 매수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이 신도시 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하여 가격이 급락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 ② ㉡ : 의원들이 모두 의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 ③ ㉢ :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으실 거야.
- ④ ㉣ : 상하이 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선 곳이다.
- ⑤ ㉤ : 밝은 달은 강물을 비추고 강물은 하늘을 비쳤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분석철학자인 카르납은 어떤 언명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환원될 수 없을 경우에 그 언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사이비 언명’이라 부르며 배척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문장을 살펴보자.

- I. 카이사르는 그리고(Cesar is and).
- II. 카이사르는 소수이다(Cesar is a prime number).

‘I’은 어법에 맞지 않아서, ‘II’는 참과 거짓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관찰 사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 카르납은 특히 II와 같은 유형의 사이비 언명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를 통해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하이데거는 ‘무(無)란 무 자체가 무화(無化)한 것으로서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언명을 통해 ‘무’도 관찰 가능한 대상임을 말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르납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언명에서 원래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문자적 의미의 ‘무’가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슬그머니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즉 카르납은 ‘무’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명이 은유의 개입으로 인해 문자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된 사이비 언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던 카르납은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어를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나누고 전자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후자는 문학과 같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각각 고정해 두고자 했다. 카르납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인들의 은유적 언어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대상에 불과했으며, 오직 문자적 언어만이 세계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겼다.

이러한 카르납의 언어관과 달리 실용주의자 로티는 언어란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로, 거기에는 어떤 고정적 의미나 초월적 진리가 담겨있을 수 없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보여 준다. 언어의 의미는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연하게 정해지는 것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로티는 객관적인 문자적 언어와 주관적인 은유적 언어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구분해 줄 만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로티는 이러한 생각이 언어의 우연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은유적 언어는 그것이 사용된 특정한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일 뿐 언어 자체가 은유적인 본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로티는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적 서술들의 옳고 그름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뿐, 끝내 세계의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로티는 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특정 시대의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의미일 뿐 문화적, 시

대적 배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세계에 관해 우리가 밝히는 것이 세계와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서술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그 진리에 더 부합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로티는 이러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술해 나가는 진리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서술되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보다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로티는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자신만의 어휘로 서술해 나가는 시인과의 같은 작업을 통해 저마다의 진리가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재서술해 나가는 개인을 일컬어 ㉑ 아이러니스트라고 불렀다. 로티는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이 자기완성의 길일 뿐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개인적 진리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고 단정했다. 로티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과거의 수많은 철학자들 역시 아이러니스트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들이 찾은 진리 또한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스트는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공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으므로, 로티는 사적 영역에서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그가 말하는 ㉒ 자유주의자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과 관습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여 나가는 연대성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듯 로티는 보편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인 영역과 시대의 보편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인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과정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22.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카르납은 하이데거의 언명이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여겼다.
 - ② 로티는 언어의 우연성 안에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③ 카르납은 언어 자체의 의미에, 로티는 언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에 주목했다.
 - ④ 카르납은 문자적 언어가, 로티는 은유적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고 여겼다.
 - ⑤ 카르납과 로티는 모두 객관적 언어와 주관적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보았다.

23. 밑글에 나타난 ‘카르납’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최근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를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10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고, 향유고래를 부검한 과학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고 밝혔다.
- 철학자 니체는 종교의 초월성과 절대성, 즉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 가치가 인간을 무력하게 한다고 보고, ‘신은 죽었다’라는 언명을 통해 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자 했다.

- ① 향유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므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한 언명에 해당하는군.
- ②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생물이 아니어서 죽음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무의미한 언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군.
- ③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원래 ‘생명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죽었다’라는 단어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은유적 의미가 개입된 언명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종교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군.
- 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겠군.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 한용운은 기미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썼다. 이 시에서 한용운은 ㉠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윤리와 도덕, 법률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권력을 지닌 자나 재력을 소유한 자를 위해 봉사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당대의 모순적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 ① 카르납은 ㉠이 시의 한 구절이라는 점에서 ㉠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다.
- ② 카르납은 ㉠이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이므로 ㉠을 통해서 세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③ 로티는 ㉠을 구성하고 있는 시어들이 드러내는 의미가 우연하게 정해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 ④ 로티는 ㉠이 한용운에게 개인의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 한용운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 ⑤ 로티는 윤리와 도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5. 로티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 ② 한 개인은 ㉠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실현해 내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③ 한 개인은 ㉠으로서 자기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만의 언어로 개인적 진리를 찾을 것이고, ㉡으로서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 ⑤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을 서술하며 진리를 찾을 것이고, ㉡으로서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할 것이다.

26. ㉢에 대한 로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옳다는 것은 세계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 ② ㉢은 다른 시대나 다른 사회에서 옳지 않은 서술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 ③ ㉢은 다른 언어적 서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문자적 언어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다.
- ⑤ ㉢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승인에 의하여 옳다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